

빨래용 세제 “아크론 코튼 앤 캐주얼”

“코튼 USA 마크” 라이선스 받아

일본면업진흥회(日本綿業振興會)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“라이웃(주 : 珠)”가 면제품용으로 새로 개발한 세제(洗劑) “아크론 코튼 & 캐주얼”에 “코튼 USA 마크”를 붙일 수 있는 라이선스(license)를 받았다고 한다.

“아크론 코튼 앤 캐주얼”은 염색되어 있는 면제품의 색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이나 빨래를 하거나 빨래 후에 밖에서 널어 말리면 색이 바래는 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빨래를 할 때에는 수돗물 속에 들어 있는 염소(素)가 주원인이 되어 색이 바래기 쉽다. 그래서 이 세제에는 빨래를 하거나 헹굴 때 이 세제에 들어 있는 “아미드·아민(amid-amine)”이 수돗물에 녹아 있는 염소를 제거하면서 섬유에 묻혀서 색이 바래는 것을 막아준다. 또한 형광제(螢光劑)가 들어 있지 않아 연한 파스텔 색(pastel 色)이나 염료의 원색을 잘 들어내어 나타내게 되어 있다.

“코튼 USA 마크”는 보통 품질이 우수한 면제품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, 이외에도 면제품의 우수성을 가장 잘 살려주는 뛰어난 기술의 상품에도 이 마크의 표시를 허가해 주고 있다.

그 대상은 ①면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로 획기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보이며 ②면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제면화평의회(國際棉花評議會)에서 심사하여 라이온사에 의하여 개발된 이 새로운 세제가 면제품의 세탁에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한다.